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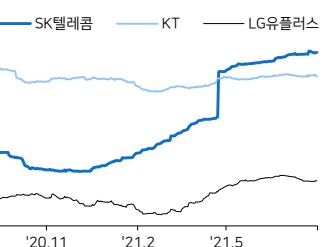
2021.8.23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4.6	-6.0	-3.0	-0.3	11.2	11.2	1.2	1.2	1.6	1.6	
통신업종	-7.6	-7.2	-5.1	16.6	8.5	8.5	0.7	0.7	3.9	3.9	
SK텔레콤	-9.0	-8.1	-8.1	14.7	8.5	7.1	0.8	0.7	3.6	3.8	
KT	-6.6	-8.5	2.7	22.9	8.5	8.0	0.6	0.5	5.0	5.4	
LG유플러스	-5.5	-9.9	-6.8	11.4	8.4	7.5	0.8	0.7	3.8	4.2	
AT&T	-2.2	-1.2	-8.1	-4.9	8.5	8.6	1.1	1.1	7.6	7.2	
Verizon	-0.6	-0.8	-2.4	-1.6	10.5	10.4	2.9	2.6	4.6	4.6	
T-Mobile	-2.2	-1.9	4.2	18.1	56.4	40.4	2.6	2.4	0.0	0.0	
NTT	-2.4	0.1	-1.7	0.9	11.4	9.3	1.3	1.2	3.7	3.8	
KDDI	-0.2	-2.5	-9.2	-0.8	11.8	11.5	1.7	1.5	3.6	3.8	
Softbank	-7.4	-15.3	-27.7	-41.6	2.7	5.8	1.4	1.0	0.7	0.7	
China Mobile	-2.4	0.8	1.5	-9.1	7.6	7.2	0.7	0.7	7.2	7.8	
China Unicom	1.6	3.3	4.2	-18.0	7.8	6.9	0.3	0.3	6.2	7.3	
China Telecom	-10.9	-12.5	9.4	3.3	8.0	7.6	0.5	0.5	7.4	8.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6.8% (-0.1%p WoW, +0.3%p MoM)

KT 44.2% (Flat WoW, -0.2%p MoM)

LGU+ 32.9% (+0.1%p WoW, -0.5%p MoM)

LGU+ 외국인 지분율 반등 성공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8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3.0%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통신주 역시 방어주 역할을 못한채 큰 폭으로 하락 미국 T모바일, 해킹공격으로 역대 최대 피해 규모인 4,800만명 이상 고객 데이터 유출 확인 국내 기관은 KT, LGU+ 순매수, SK텔레콤 순매도. 외국인은 LGU+ 순매수, SK텔레콤, 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27일(금)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 공식 출시 예정 5G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로 마케팅 부담은 존재하나, 국내 5G가입자 순증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 5G 통신장비는 미국 버라이즌형 물량 확대가 예상되는 3Q21부터 개선된 실적 전망 8월 이후가 삼성전자 밸류체인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적기라고 판단. Top Pick은 대한광통신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5	16	17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 사전예약 시작	18	19	20	21
22	23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 사전예약 종료	24	25	26	27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 공식 출시	28

3 주간 뉴스

▶ "메타버스 '이프랜드'는 5G 확산 촉진제…향후 커머스 접목"

(ZD Net Korea)

-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가 5G 확산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 메타버스는 출시 한달 간 수천개의 공간과, 수만개의 모임 생성. 코로나 대안 소통 공간 역할 수행 중
- SK텔레콤은 현재 초기 모델인 모임 공간에서 점차 커머스 공간으로 변화시켜나간다는 계획
- ⇒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결정되면서 SK텔레콤은 분할 전까지 체질 개선 노력에 주력할 전망
- ⇒ 이번 신규 서비스의 초기 성과가 향후 존속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정당화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

▶ SKT 신설투자법인 'SK스퀘어' 11월 공식 출범

(전자신문)

- SK텔레콤이 인적 분할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문투자회사 이름을 'SK스퀘어'(SK Square)로 확정
- SK텔레콤은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인적 분할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
- 확정 시 기존 SK텔레콤은 6대4 비율로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분할되며 11월 1일 공식 출범
- ⇒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11번가, ADT캡스, 팀모빌리티, 웨이브, 원스토어 등을 보유할 계획
- ⇒ 반도체, 모빌리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오는 2025년 자산가치 75조원을 달성 목표

▶ CJ ENM, LGU+에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ZD Net Korea)

- CJ ENM,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 추가 과금 없이 이용, 저작권에 피해를 줬다는 입장
- CJ ENM 측은 KT와 SK브로드밴드 한테는 셋톱 개수대로 사용료를 받았다고 주장
- ⇒ 현재 CJ ENM과 IPTV 업계는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지속 갈등 중이며 금번 소송으로 갈등 심화
- ⇒ 한편 LG유플러스는 이용자에게 추가로 이용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비용이 없다는 입장

▶ 대형통신사 'T모바일'마저 당했다…美서 수천만 개인정보 유출

(머니투데이)

- 가입자 1억명을 보유한 미국 T모바일,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4,8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 유출된 티모바일 고객 개인정보는 이미 해커들이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매물로 나와 거액에 판매
- 역대 최대 이통사 피해 규모로 미국 FCC는 이번 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조사에 나설 전망
- ⇒ 양자암호통신 등 혁신기술 활성화와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
- ⇒ 국내통신 3사의 양자 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의 상용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

▶ 인텔리언테크, 원웹과 1000만달러 규모 저궤도 터미널 공급 계약 체결

(조선비즈)

- 인텔리언테크, 원웹과 1,027만 달러(약 121억원) 규모 저궤도 듀얼 랜드 터미널 공급 계약 체결
- 2019년 12월 190억원 계약, 올해 3월 823억원 규모 계약에 이어 원웹과의 3년째 대형 계약
- 금번 계약은 매출액 대비 10.96% 규모이며 계약 시작일은 18일, 종료일은 2022년 8월 31일
- ⇒ 인텔리언테크는 최근 79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 ⇒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공장 부지 및 생산라인 투자, 단말기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

▶ LGU+, 5G 기반 M2M 출시…'더 빠르게·더 많이 접속한다'

(아이뉴스24)

- LG유플러스, 5G 기반으로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M2M 서비스 출시
- 현재 M2M은 LTE 망을 이용해 무선결제, 차량 관제, 실시간 영상전송 등에 주로 활용되는 상황
- 5G 기반으로 제공되는 M2M 서비스는 기존 LTE M2M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배 이상 증가
- ⇒ 국내 M2M 시장은 무선통신 사용 확대, 비대면 혁신 등으로 2023년까지 지속 성장 전망
- ⇒ LG유플러스는 향후 비통신 매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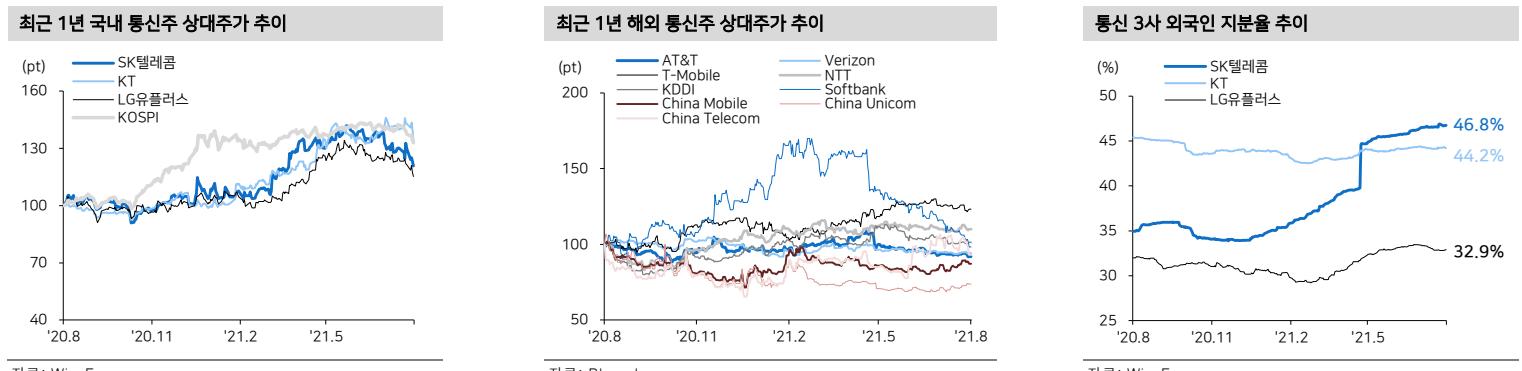
주요 지표

(집계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284,500	17.4	16.7	17.3	1.3	1.4	2.1	2.5	4.9	5.0	5.4	5.3	10.2	10.9
	KT	31,950	7.1	21.1	21.6	1.3	1.4	0.8	0.9	4.4	4.5	2.8	2.7	6.9	7.1
	LG유플러스	13,650	5.1	11.8	12.3	0.9	1.0	0.6	0.7	3.0	3.1	3.5	3.4	9.4	9.7
미국	AT&T	27.6	196.8	171.9	161.3	34.1	32.3	22.4	22.1	53.0	52.1	7.2	7.3	13.0	12.2
	Verizon	55.5	229.9	135.2	136.2	32.1	33.2	22.0	22.2	48.5	49.9	7.8	7.6	28.8	25.7
	T-Mobile	141.8	177.0	80.5	82.3	7.3	9.6	3.1	4.4	26.7	28.0	9.4	8.9	4.8	5.8
일본	NTT	2,844	101.0	108.2	109.3	15.1	15.7	8.4	9.9	29.0	29.6	6.2	6.0	10.8	14.3
	KDDI	3,365	70.6	48.5	49.0	9.6	9.6	6.0	6.1	16.3	16.4	5.3	5.2	14.5	13.6
	Softbank	6,152	96.5	50.9	54.5	49.9	8.4	37.1	16.4	50.0	17.8	5.1	14.2	39.3	11.2
중국	China Mobile	50.6	133.0	128.9	135.9	18.4	19.7	17.5	18.7	47.1	49.2	1.3	1.3	9.6	9.7
	China Unicom	4.4	17.4	49.8	52.6	2.1	2.4	2.2	2.5	15.0	15.7	1.0	0.9	4.4	4.9
	China Telecom	2.8	77.8	66.1	70.5	5.2	5.6	3.9	4.2	19.5	20.4	4.3	4.1	6.5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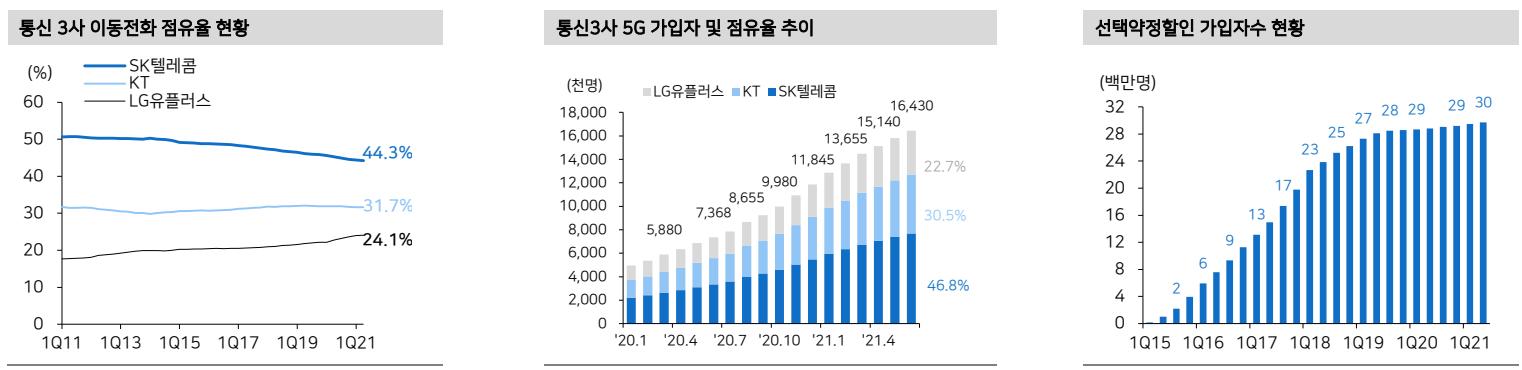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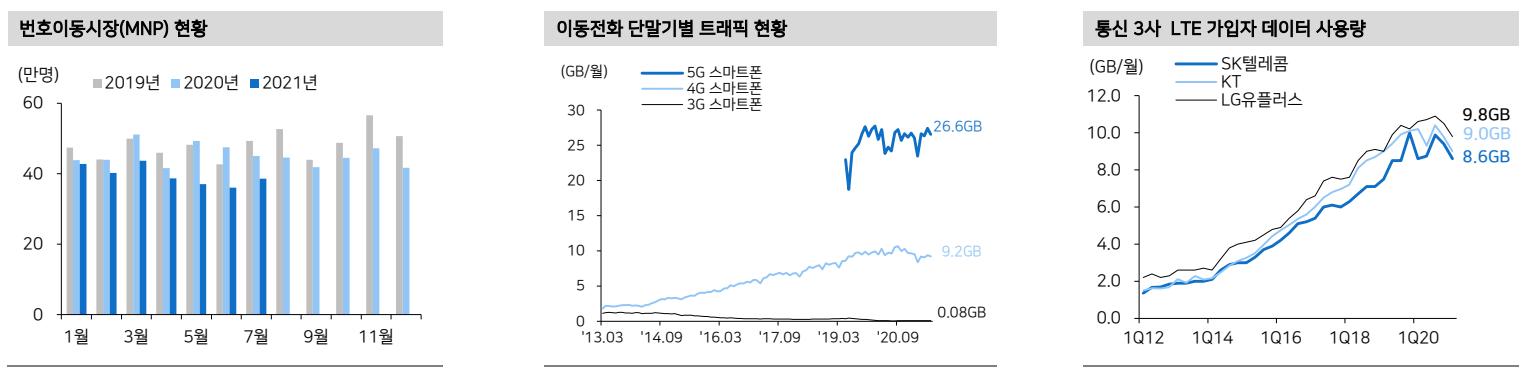
주요 차트



자료: WiseFn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